

[사회공헌특집] 지속 가능 행복한 농어촌 ESG 경영...고령화 대응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

강승규 | 입력 2025-12-17

환경·청렴·세대교체로 확장되는 농어촌 ESG 플로깅·청년 참여·농지이양까지 현장 중심 실행 선언을 넘어, 농업인이 체감하는 변화로



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 임직원과 지역 주민들이 지난 6월 대구 단산저수지에서 '행복한 농어촌, 함께 가꾸는 호숫길 쓰담쓰담' 캠페인을 진행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경북지역본부 제공>

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본부장 서선희)가 환경 보호와 사회적 책임, 투명한 경영을 아우르는 ESG 경영을 현장에서 실천하며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성을 키우고 있다. 선언에 그치지 않고 지역 사회와 함께 호흡하는 실행 중심의 ESG 경영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북본부는 임직원과 지역 주민, 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플로깅 캠페인 '행복한 농어촌, 함께 가꾸는 호숫길 쓰담쓰담'을 3년 연속 이어오고 있다. 저수지와 해안가 등 농어촌 현장에서 달리며 쓰레기를 줍는 이 캠페인은 환경 보호와 건강 증진을 동시에 도모하는 공사의 대표적 사회공헌 활동으로 자리 잡았다. 특히 지역 주민의 자발적 참여가 늘면서, 생활 속 환경 실천 문화로 정착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SG 경영의 성과를 공유하고 확산하기 위한 노력도 꾸준하다. 경북본부는 ESG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ESG 혁신콘서트'를 5년째 개최하며, ESG를 조직 내부의 공감대와 실행력으로 연결하고 있

다. 이를 통해 현장 직원들의 참여와 정책 연계도 한층 강화되고 있다.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한 활동도 눈에 띈다. 경북본부는 대구경북 지역 대학생으로 구성된 'K-청렴 서포터즈'를 운영하며, 청년 세대가 직접 청렴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SNS를 통해 확산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서포터즈의 활동 성과에 따라 적립된 기부금은 사회취약계층에 '청렴기부금'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미래 세대가 청렴 문화 조성의 주체로 참여하고, 지역사회 공헌으로까지 이어진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농촌 고령화에 대응한 제도적 지원도 강화하고 있다. 경북본부는 고령 농업인의 안정적인 은퇴와 청년 농업인의 농지 확보를 돕는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을 적극 추진 중이다. 만 65세 이상 고령 농업인이 농지를 농지은행에 이양하면 은퇴직불금을 받을 수 있고, 해당 농지는 청년농이나 전업농에게 임대·매도돼 농지 이용 효율을 높이고 세대교체를 촉진한다. 이 제도를 통해 고령 농업인의 노후 불안을 덜고,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효과도 기대되고 있다.

이와 함께 경북본부는 학계 전문가와 함께 농어촌의 미래를 모색하는 'KRC-Professor 컨퍼런스'를 열어, 공사 사업 전반에 대한 전문적 의견을 수렴하고 지속 가능한 농어·농촌 발전 방향을 논의하고 있다. 정책과 현장을 잇는 소통 창구로 기능하고 있다는 평가다.

서선희 경북지역본부장은 "ESG 경영을 기반으로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농업인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가겠다"며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는 공공기관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프린트

취소